

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「희소금속협력센터」 개소

- 산업부 ODA '23~'27년간 총 98억원,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지원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는 12.12(금),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내 '한-몽 희소금속협력센터'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.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~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·운영된다.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, 석유광물청, 지질연구소, 한국 산업통상부, KIAT,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.

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'희소금속협력센터' 설립·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,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, 카자흐스탄,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총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업이다.

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지질연구소가 공동으로 텅스텐, 몰리브덴, 리튬 등 몽골 내에 부존하는 희소금속을 분석하고, 선광·정제련 등의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.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.

산업통상부는 이번 센터 개소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, 향후 센터 운영을 통해 몽골의 희소금속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근용 (044-203-56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현 (044-203-5674)

□ 개요

- (목적) 텅스텐, 몰리브덴, 리튬 등의 분석, 선광, 제련 등을 통해 몽골 희소금속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, 국내 공급망 강화 도모
- (대상지) 몽골 울란바타르 과학기술대학교 內
- (규모) '23~'27까지, 총 5년간 9,780백만원 규모로 추진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
예산(백만원)	900	4,120	2,470	1,220	1,070	9,780

* 몽골 측 분담 : 희소금속협력센터 부지(4,000m²) 및 건물 분담 예정

- (수행기관) 선정 예정('23.05) 지자연-몽골지질연구소(GCRA)

< 추진경과 >

- 타당성조사 실시('21.11-'22.2)
- 몽골 재무부로부터 수원요청공문 접수 ('22.2)

□ 사업 내용

- (센터 구축)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 구축 부지 및 건물 확정, 내부 설계, 리모델링, 운영 규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
- (기자재 지원) 중소 광업기업, 대학, 연구소에 희소금속 등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, 교육, 기업지원 등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 인프라 구축
 - * 분석장비, 선광장비, 건식제련장비, 습식제련장비 및 공통장비(전기로, 가열기 등)로 구성
- (교육훈련) 희소금속 등 광물 고부가가치화 분야 연구, 개발 및 생산 활성화를 위해 중소 광업기업, 대학, 연구소의 인력개발 기반마련
 - * 학위과정, 한국초청 및 몽골현지교육으로 선광, 습식제련, 건식제련, 기술경영 교육
- (한-몽 공동연구) 몽골의 희소금속 개발 및 생산의 지속가능성*, 개발 효율성, 수출다변화 등을 목표로 몽골 현지 적용 기술개발 진행
 - * 친환경 지속가능 광산개발 및 체계적, 효율적인 희소금속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에 적합한 기술개발